



식약처, 의료기기 제조·수입사, 판매처에 주사기 등 유통단계 안정공급 협조요청

- 최근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‘주사기’ 생산량 평시 수준 유지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일일 수급상황 모니터링과 제조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, ‘주사기’ 제조업체의 생산량은 평시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을 확인하였다.

다만,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, 식약처는 전국 ‘주사기’ 제조·수입업체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에 주사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초과 주문 시 관련 정보제공*을 4월 7일 요청하였으며, 향후 제공받은 정보를 보건복지부,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.

* 최근 3개월(‘25.12월~’26.2월) 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려는 주문을 접수받은 경우 식약처에 제공

식약처는 향후에도 주사기 등 의료기기의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필수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의료현장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성홍모 (043-719-3752)
		담당자	사무관	임경택 (043-719-3761)
협조 부서	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호동 (043-719-3801)
		담당자	사무관	조정진 (043-719-3816)